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02	08.09	08.16
대표 기도	정용현 집사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성경 봉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눅18~24, 은1~4, 나1~3, 율1~3, 요1~3장)
2.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3.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4.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양승원 성도, Andreas Mäder(26일)
생일	황희순 집사(8월 1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사도신경 (새번역).....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188장..... 다같이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삼하 13 : 20 - 22(구p483).....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2.Samuel 13:20-22).....**흔들림 없는 중심**.....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189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커튼 뒤에 숨는 사람들

사람들은 참된 자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숨기기 위해 극단적인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커튼 뒤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감정적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커튼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최대한 빨리 다시 커튼 뒤로 숨습니다. 이렇게 평생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사람들은 이웃의 참 모습을 거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자신까지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아인식”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벗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과감히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도 취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시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 우리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 판단은 불꽃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의 몫입니다. 나 개인도 최종적 판단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 A. W. Tozer

*** 말씀 선포하기를 더욱 힘쓰며, 말씀으로 논쟁하기를 더욱 자제하라.**

- William Cameron Townsend(미국 선교사, 위클리프 번역선교회 설립) -